

2020년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산업생태학회, 한국환경경영학회 통합 추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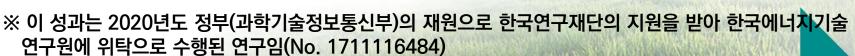
플라즈마 탄소자원화 기술의 LCA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분석

2020.12.10.

녹색기술센터 이종석 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염성찬 선임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박철호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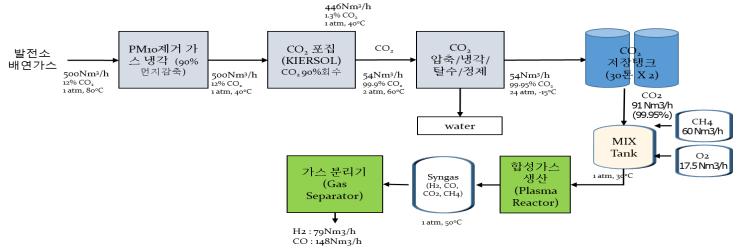
※ 본 발표자료는 2020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의 특별세미나에서 진행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자료임



1. 연구 배경 및 목적

■ CCUS 기술 개발의 한계점 및 연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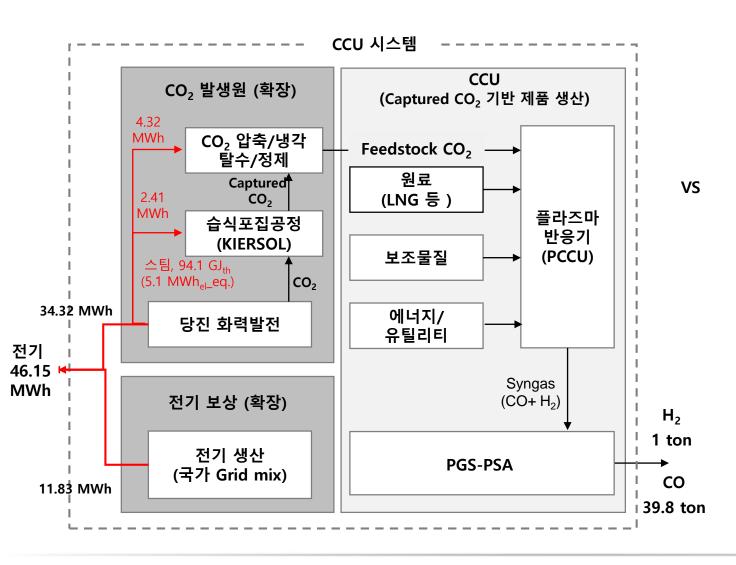
- ※ (연구 방향성) CCUS 상용화를 위해선, 경제성, 환경성 평가 기반의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CCUS 관련 신기술 개발이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아울러 최근 환경성, 경제성 등의 CCUS 기술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 ≫ (연구 목표) 이에 본 연구는 CCUS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CCU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 LCA를 통해,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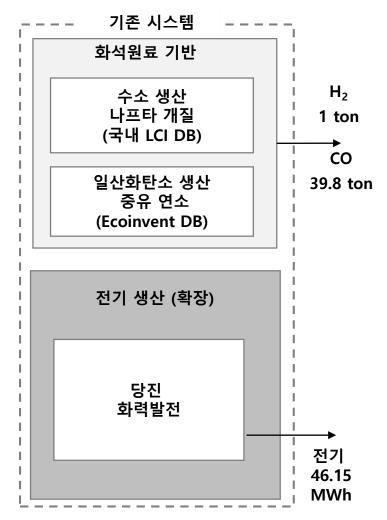


[본 연구대상 공정인 저온 플라즈마 개질 기술 공정도]

2.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1)

▮ 기능, 기능단위 및 시스템 경계 설정





▮ 시나리오 설정

구분	시나리오	설명
기존	Scenario 1	 나프타 개질 및 중유 부분 연소를 통한 H₂ 및 CO 생산 당진화력 발전원별 비율 적용을 통한 전력 생산(현재 기준)
	Scenario 2	 나프타 개질 및 중유 부분 연소를 통한 H₂ 및 CO 생산 2030년 당진화력 발전원별 비율 적용을 통한 전력생산(한국동서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CUS	Scenario 3	 탄소자원화 기술을 통하여 H₂ 및 CO 생산하되, PCCU 공정에서 반응하지 않는 CO₂ 및 CH₄를 재활용(w/ recycling) 당진화력 발전원별 비율 적용을 통한 전력 생산 + Grid mix 전력 보상(현재기준)
	Scenario 4	 Scenario 3 2030 당진화력 발전원별 비율 적용을 통한 전력 생산 + 국가 2030 Grid mix 전력 생산의 회피영향(Avoided impact_8차전력수급계획)
	Scenario 5	 Scenario 4 PCCU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공정열을 바탕으로 CO_2 포집을 위한 재생열에너지로 활용

▮ 기존 및 CCUS 시스템 전과정평가 결과 비교(S1 vs S3)

- ※ 기존 시스템(S1) 대비 CCUS 시스템(S3) 경우 온실가스, 오존층파괴, 미세먼지 생성, 자원고갈 측면에서 모두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 기존기술 대비 온실가스(19% 저감), 오존층파괴(75% 저감), 미세먼지 생성(41% 저감), 자원고갈(36% 저감)
- ※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기술 대비 19% 저감 효과가 있지만 PCCU 및 PSA 등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공정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Impact category	Unit	S 1	S2	S 3	S 4	S 5
Climate change	tonCO ₂ -eq	144.07	132.38	115.99	87.33	84.70
Ozone depletion	kgCFC-11-eq	0.0225	0.0226	0.0057	0.0027	0.0026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kgPM10-eq	323.14	300.60	190.87	72.81	70.39
Fossil depletion	ton oil-eq	68.05	64.55	43.23	30.51	29.71

1.68E4 kg O3.5cenario 3
1.16E5 kg CO2 eq

7.91E4 kg O4-3.5yngas from PCCU
8.22E4 kg CO2 eq

1.68E4 kg O4-2.Liquified CO2 (natural gas_NG)
1.69E4 kg CO2 eq

1.68E4 kg CO2 eq

1.7E4 kg CO2 eq

1.7E5 kg CO2 eq

1.7E6 kg CO2 eq

1.7E6 kg CO2 eq

1.7E6 kg CO2 eq

1.7E7 kg CO2 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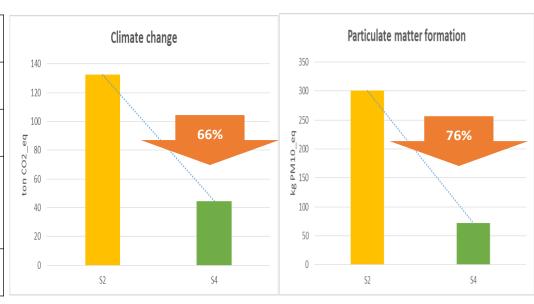
1.7E8 kg CO2 eq

[전과정평가를 활용한 시나리오 별 탄소자원화 기술의 환경영향 값(요약)]

[Scenario 3 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 발전원별 비율 변화에 따른 전과정평가 결과 비교(S1 vs S2, S3 vs S4, S2 vs S4)
-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당진화력발전의 2030 시나리오 반영 시 해당 영향범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S1 vs S2) 기존의 경우, 온실가스 (8% 저감), 오존층파괴(동일), 미세먼지 생성(7% 저감), 자원고갈(5% 저감)
 - (S3 vs S4) CCUS의 경우, 온실가스(25% 저감), 오존층파괴(52% 저감), 미세먼지 생성(62% 저감), 자원고갈(29% 저감)
- 🔊 특히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약 44%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음(S2 vs S4)
- ※ 향후 CCUS 기술 적용 시 사용하는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

Impact category	Unit	S1	S2	S3	S4	S5
Climate change	tonCO ₂ -eq	144.07	132.38	115.99	87.33	84.70
Ozone depletion	kgCFC11-eq	0.0225	0.0226	0.0057	0.0027	0.0026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kgPM10-eq	323.14	300.60	190.87	72.81	70.39
Fossil depletion	ton oil-eq	68.05	64.55	43.23	30.51	2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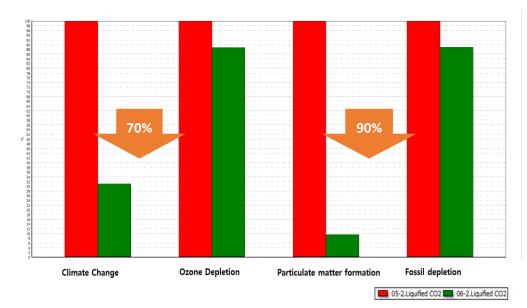
[전과정평가를 활용한 시나리오 별 탄소자원화 기술의 환경영향 값(요약)]

[Scenario 2 vs Scenario 4에 대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 미활용 공정열 사용에 따른 전과정평가 결과 비교(S4 vs S5)

-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당진화력발전의 2030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PCCU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공정열을 재활용하는 시나리오가 모든 영향범주에서 환경영향이 낮게 도출
 - (S4 vs S5) 온실가스 (3% 저감), 오존층파괴(3.3% 저감), 미세먼지 생성(3% 저감), 자원고갈(3% 저감)
- ※ CO₂ 포집을 위해 소비되는 재생열에너지는 포집 및 액화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약 43%를 차지
- 🕸 향후 CCUS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활용 공정열이 발생하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Impact category	Unit	S1	S2	S 3	S4	S5
Climate change	tonCO ₂ -eq	144.07	132.38	115.99	87.33	84.70
Ozone depletion	kgCFC11-eq	0.0225	0.0226	0.0057	0.0027	0.0026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kgPM10-eq	323.14	300.60	190.87	72.81	70.39
Fossil depletion	ton oil-eq	68.05	64.55	43.23	30.51	29.71



[전과정평가를 활용한 시나리오 별 탄소자원화 기술의 환경영향 값(요약)]

[CO2 포집 및 액화공정에서 미활용 공정열 사용 시 환경영향 저감 효과]

4. 결론 및 시사점

■ 전과정평가 수행 결과를 종합적인 분석하여, 기술 및 정책 측면에서 CCUS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기술적 측면

- ②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에너지를 100%로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와 CCUS 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 ※ CCUS 공정의 전력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 높음
- ※ CCUS 기술의 효과성을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만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환경 영향 범주 측면에서 다각적인 평가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적 측면

- RE100과 연계하여 CCUS 도입 시, 시장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체계 정비함으로써,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여야 함
- ※ CCUS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화학원료 생산 기술 등 연계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므로, CCUS와 타기술 분야의 융합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함